

보 도 자 료 2014. 10. 13. (월)	내용문의	이수연 평등문화정책센터장(02-3156-7153)
	언론담당	황애리 홍보담당 (02-3156-7296)
	보도일자	2014. 10. 13. (월)
	※ 총 5쪽 (붙임 포함) www.kwdi.re.kr	

**만 15세 이상 여성 가운데 지금까지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인터넷 인권피해 경험이 있는 여성은 85.4%**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의 온라인 인권피해 현황과 개선방안'
주제로 제89차 여성정책포럼 개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이명선)은 오는 10월 14일(화) 오후 2시에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에서 ‘여성의 온라인 인권피해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제89차 여성정책포럼을 개최한다.
- 이번 행사는 온라인 인권피해 현황 조사결과를 통해 온라인 문화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조사개요>

- 조사목적 : 향후 온라인 인권 피해의 성별화 현상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조사대상 : 만 15세 이상, 50세 미만의 전국 남녀 2,043명
- 조사기간 : 2014. 5. 8 ~ 5.30
- 조사방법 : 온라인 조사, 주요 면접 대상자에 대한 심층인터뷰

- 이명선 원장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스토킹, 명예훼손, 영상유출 등은 여성피해자 개인의 성장을 가로막고, 국가적으로는 “자율과 창의의 인터넷 생태계 조성”이라는 정부정책 추진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고 지적하며, 이번 행사가 온라인 여성 인권피해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환기하고,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온라인 문화 정착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고 행사의 개최의의를 밝혔다.
- 이날 포럼에서 김수아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수는 “여성의 온라인 인권피해 현황” 을, 이수연 본원 평등문화정책센터장은 “여성의 온라인 인권피해 개선방안” 을 발표할 예정이다.
 - 여성의 온라인 인권피해 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모든 유형을 통틀어 한 번이라도 피해를 당할 확률은 남녀 평균 85%, 여성 85.4%, 남성 84.4%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간 높았다. 유형별로 볼 때 명예훼손·모욕과 영상 유출을 당할 확률은 남성이 여성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 가장 많은 피해 유형으로는 스토킹(1,428명, 69.9%), 성폭력(1,376명, 67.4%), 명예훼손·모욕(726명, 35.5%), 영상 유출(54명, 2.6%) 순으로 나타났다.
 - 특히, ‘스토킹’ 과 ‘성폭력’ 은 전체의 2/3 이상이 넘는 많은 응답자들이 온라인 인권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고 답하여, 많은 온라인 이용자들이 ‘스토킹’ 과 ‘성폭력’ 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음을 예상해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 이수연 평등문화정책센터장은 “이번 조사결과, 피해를 겪은 후 감정을 살펴보았을 때, 여성의 정신적 피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여성들은 피해 후 우울증을 겪거나 “인터넷 활동에 대한 흥미와 의욕이 떨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 특히 명예훼손이나 영상유포 등의 피해는 주로 일대일로 일어나는 스토킹이나 성폭력과는 달리 피해자에 대한 정보가 온라인 공간의 모든 대중에게 무차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심각하며 여성의 성적 순결이나 정조를 강조하는 우리 문화에서 여성에게 훨씬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그리고 “현재 여성의 온라인 인권피해의 상황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피해는 피해자 개별적 차원에서만 다루지고 있다. 경찰에 신고를 해도 사건을 심각하게 간주하지 않아 접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회적 이슈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따라서 “성폭력방지종합대책에 온라인 성폭력 대책도 포함하여 온라인 인권피해에 대한 수사, 정책, 법령체계 개선과 정부 차원의 관련 교육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또한 “인터넷 사업자들도 이용자와 시민사회의 소리에 항상 귀를 열고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온라인 전체에서의 인권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KISO(한국 인터넷 자율기구)의 범위 확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온라인 이용량이 기하급수적인 증가하여 정부 주도의 규제만으로 온라인 인권 침해를 막기는 어려운 만큼, 시민사회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 이날 포럼의 주제발표 후에는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과장, 유정식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운영실 팀장, 강형철 숙명여자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권미혁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연구소 소장이 지정토론에 참여한다.

붙임 1. 행사 개요

2. 발표 자료

붙임 1 행사 개요

- 행사명 : 제89차 여성정책포럼
- 주제 : 여성의 온라인 인권피해 현황과 개선방안
- 주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일시 및 장소 : 2014년 10월 14일(화) 14:00~17:00,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
- 프로그램

시간	진행순서	
13:30~14:00	등 록	
14:00~14:10	개 회 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 회 : 전기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기획·평가팀장) ○ 인사말 : 이명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좌 장: 윤영철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14:10~15:00	발 표	○ 발표 1. 여성의 온라인 인권피해 현황 김수아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수)
		○ 발표 2. 여성의 온라인 인권피해 개선방안 이수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평등문화정책센터장)
15:00~16:20	지정토론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과장) 유정식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운영실 팀장) 강형철 (숙명여자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권미혁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연구소 소장)
16:20~17:00	종합토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다.

현재 한국의 여성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여성정책 및 여성 능력 개발, 여성 연구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 증진과 가족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법령, 정부 사업, 계획 등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지원하고, 정부예산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983년 개원한 여성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 2007년 5월 한국여성개발원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으로 기관명을 바꾸고,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Think-Tank 역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